

농어촌公, 2023년 전국 확대간부회의 개최

- 충실한 기본, 아름다운 문화, 빛나는 미래를 지닌 공사가 될 것을 다짐 -



[사진설명]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 등 공사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관리자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21일 본사 아트홀에서 전국의 부서장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2023년 하반기 확대간부회의’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첫 대면 회의로,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연말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올해 공사의 현안이었던 조직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소통하여 관리자리의 개선 의지를 다지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.

오전에는 부서별 사업 실적, 손익 전망 발표 등 공사 현안과 협조 사항을

공유하고, 이병호 사장의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공사 미래, 관리자리의 역할에 대해 평소 고심해 온 생각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오후에는 김연준 신부*와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리더의 덕목인 존중과 소통의 가치를 되새기며 ‘존중 일터 만들기 선언’을 진행하였다.

* (김연준 신부) 한센인들을 위해 40여 년간 헌신한 소록도 마리아노와 마가렛의 생애를 다룬 영화 제작자

이병호 사장은 “공사 핵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, 안전·청렴 등 기본에 충실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할 것”을 강조하며 “공사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관리자리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솔선수범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관리실	책임자	부 장	김용구 (061-338-5121)
	기획총괄부	담당자	차 장	우현주 (061-338-5131)